



광주FC가 지난 16일 상주 상무와의 개막전에서 0-3으로 완패했다. 광주 선수들이 후반 28분 이근호에게 세번째 골을 허용한 후 허탈해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2부리그도 만만치 않네”

광주FC, 개막전서 상무에 0-3 완패

1부 리그 승격 향한 길 혐로 예고

“한마디로 완패다.”

승격을 향한 광주 FC의 첫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광주는 지난 16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K리그 첼린지 1라운드에서 특급 공격수 이근호에게 2골을 허용하는 등 0-3으로 패했다.

전반 30분 이근호의 기습슈팅으로 시작된 상주의 공세는 후반 14분 김동찬, 후반 28분 이근호의 골로 이어졌다.

광주가 후반 시작과 함께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다. 카시오와 교체해 들어간 투시오의 슈팅을 시작으로 후반 초반 광주의 대공세가 이뤄졌다. 후반 8분 코너킥 찬스에 이어 박현의 슈팅이 무위에 그친 뒤 후반 9분 다시 한번 상주 수비 진영에 경합이 벌어졌다. 문전에 있던 김은선이 헉헉한 공을 잡아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를 맞고 나온면서 경기의 흐름을 잡는 데 실패했다.

동점기회를 살리지 못한 광주는 결국 개인과 파워로 무장한 상주의 대패를 당했다.

막강한 우승후보로 주목받은 두 팀

의 대결이었던 만큼 상주의 일방적인 플레이 속에 싱거운 승부가 되고 말았다.

사령탑 데비전에 나선 광주 여별규 감독이 “한마디로 완패다”고 말할 정도로 승격을 향한 길에 많은 해결 과제를 남긴 경기가 됐다.

여 감독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축구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2011·2012년 광주가 힘의 축구를 했다면 기술축구로 바꾸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통하지 않았다. 재고를 할 수도 있다. 모든 면에서 완패다. 지략싸움에서도 졌고, 선수들의 움직임과 정신력에서도 졌다”고 완패를 인정했다.

여 감독이 ‘재고’라는 단어까지 언급할 정도로 광주에는 충격적인 결과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승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 광주가 빼어 든 카드는 ‘패스 축구’였다. 세밀하고 빠른 패스 전개로 승부를 펼치겠다는 계산이었지만 ‘대왕 상무’로 통하는 상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여 감독은 “수비에서 미드필더로

나오는 과정을 강조했었다. 패스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에 따라서 강한 팀 같은 경우에는 경합을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하였다. 전지훈련을 통해 수비 조직력이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수차례 강조했던 것이 볼을 갖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 더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새 전술에 대한 완벽한 습득과 상대 팀·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가 숙제로 주어진 가운데 ‘부담감 털어내기’도 첼린지 리그 정복을 위한 필수 과제를 남긴 경기가 됐다.

광주 선수들은 개막전에서 전지훈련과 훈련과정에서 보여준 듯 몸놀림이 아닌 경직된 움직임으로 90분 내내 답답한 경기를 펼쳤다. 상주 선수들의 개인기에 수비진들이 끌려다니면서 공격진까지 넓게 그라운드를 뛰어야 했고,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무디면서 중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김은선이 윗선까지 치고 나와야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이 억기면서 조직력이 무너졌다. 광주의 쏜 실패가 보이기 될 수 있을지, 오는 24일 전개될 충주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기 광주 FC 개막전 관람

“K리그 클래식서 맞불고 싶어”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광주에...
16일 K리그 첼린지 광주 FC와 상주 상무의 개막전이 열린 광주 월드컵경기장에 반기운 얼굴이 찾아왔다. 그라운드가 아닌 관중석에서 만난 이는 전북 현대의 미드필더 이승기. 지난 12월까지는 광주 선수단 속에 있던 얼굴이다.

올 시즌 광주가 2부인 K리그 첼린지로 떨어지면서 국가대표 출신의 이승기는 눈물을 머금고 정들었던 광주를 떠나 전북으로 새동지를 옮겼다.

발목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이승기는 이날 3박4일의 휴가를 받아 고향 광주를 찾았다.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발길을 한 곳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었다.

이승기는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다. 처음 광주가 개막할 때 부상으로 뛰지 못해서 관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차운인 것 같다. 관중석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새롭다”고 반기운 마음을 전했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옛 동료 팀에서 그라운드를 지켜 본 이승기는 광주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전했다.

이승기는 “광주가 올 시즌 잘해서 1부 리그에 올라오면 좋겠다. 광주와 다시 한 무대에서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반전을 지켜 본 이승기는 소속팀 전북의 경기를 보기 위해 일찍 자리를 떠고, 광주는 이승기의 바람과 달리 0-3으로 패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이승기.

원정대는 이홍우(성우종합건설 대표) 단장을 비롯해 박상수(광주·전남 학생안연맹 명예회장)·이병철(보성 예당고 교사) 부단장, 이성원(남강산업 대표) 원장대장, 김홍빈(에스솔즈 흥보다사) 부대장, 박남수(히말라야 무등산점 대표) 등반대장, 박현수(광주·전남 등산학교 강사)·박상훈(〃) 대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 칭천중가 원정대는 지난 16일 순천만 정원박람회장내 국제 습지센터에서 조충순 순천시장과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 위계룡(매디팜 재활요양병원장) 주진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전남 산악인 14좌 완등 꼭 이루겠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 기원 칭천중가 원정대 발대식

‘열손가락이 없는’ 고산 등반가 김홍빈(광주일보 3월 7일자 2면) 등 광주·전남 산악인들이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며 칭천중가(海拔 8586m) 등정을 위한 장도에 오른다. 세계 3 위의 거봉인 칭천중가는 8000m급 14개봉 광주·전남 지역 산악인이 정상을 밟지 못한 유일한 봉우리이다.

한국 칭천중가 원정대는 지난 16일 순천만 정원박람회장내 국제 습지센터에서 조충순 순천시장과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 위계룡(매디팜 재활요양병원장) 주진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원정대는 이홍우(성우종합건설 대표) 단장을 비롯해 박상수(광주·전남 학생안연맹 명예회장)·

말~5월초에 정상에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깃발을 꽂을 계획이다.

8000m 14좌 가운데 8번지 도전에 나서는 김홍빈(49) 부대장은 “정말 가기 어려운 산이기 때문에 즐겁게, 행복하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정상에 오르겠다. 안전하게 꼭 돌아와서 순천만 정원박람회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칭천중가는 히말라야 8000m 14개 산중에서 가장 동쪽인 네팔과 부탄 경계에 자리하고 있으며, 1955년 5월 영국 원정대 조지 밴드와 조 브라운이 초등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수창초 야구 우승 소년체전 광주대표 선발

결승서 대성초 6-5 꺾어

광주 수창초등학교가 전국 소년체전 광주 지역 결승에서 대성초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6-5승리를 거

웠다. 이날 승리로 수창초는 오는 5월 25일 대구에서 개최하는 소년체전 광주 초등부 대표자격을 얻었다.

중등부 소년체전 예선리그전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무등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창초 야구 우승 소년체전 광주대표 선발

결승서 대성초 6-5 꺾어

광주 수창초등학교가 전국 소년체전 광주 지역 결승에서 대성초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6-5승리를 거

수창초는 지난 16일 본당 리틀구장에서 열린 제4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광주 지역 결승에서 대성초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6-5승리를 거

웠다. 이날 승리로 수창초는 오는 5월 25일 대구에서 개최하는 소년체전 광주 초등부 대표자격을 얻었다.

중등부 소년체전 예선리그전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무등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해외 및 섬은 계재가 불가합니다.(복지민 가능)

3월 19일(화)

▲광주산들산악회 3월 19일(화) 통영 육지도 천왕봉, 월드컵 주차장 07:00, 동아영원 07:10, 광주역 07:20, 문예회관문 07:30

*다음카페 광주산들화요산악회

010 2737 0280

▲통일산악관 3월 19일(화) 충북 읍천 육지연수원, 04:40 교원공제, 04:50 문예후원, 05:00 동광주봉화야트

*다음카페 광주산들화요산악회

010 3608 6922

3월 20일(수)

▲광주청룡산연회 3월 20일(수) 청주 청주 청룡산 07:00, 문예회관 07:10, 광주역 07:20, 문예회관 후문 07:30

*다음카페 통일산악관 010 4629 1881

3월 20일(수)

▲광주청룡산연회 3월 20일(수) 청주 청주 청룡산 07:30, 문예회관 07:40, 광주역 07:50, 동광주봉화야트 08:00 교원공제, 08:10 광주역, 08:20 문예회관 후문 08:30

*다음카페 통일산악관 010 4629 1881

3월 21일(목)

▲광주월도산악회 3월 21일(목) 소백산, 3월 21일(목)

*다음카페 광주월도산악회

011 646 3450, 011 259 0284

3월 22일(금)

▲블랙아크40명산탐방 3월 22일(금) 소백산, 3월 22일(금)

*다음카페 광주월도산악회

010 9602 3925, 010 259 7210

3월 23일(토)

▲광주수도산악회 3월 23일(토) 남해 금산, 08:00 업주체육관, 08:10 광주역, 08:20 문예회관 후문 08:30

*다음카페 광주수도산악회

010 3608 6922

3월 24일(일)

▲광주수도산악회 3월 24일(일) 남해바다, 디도봉, 07:30, 바다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상, 07:40 교원공제, 07:50 문예회관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다음카페 광주수도산악회

010 5778, 010 915 1000

3월 25일(월)

▲광주수도산악회 3월 25일(월) 남해 바다, 07:30, 바다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상, 07:40 교원공제, 07:50 문예회관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다음카페 광주수도산악회

010 5778, 010 915 1000

3월 26일(화)

▲광주수도산악회 3월 26일(화) 남해 바다, 07:30, 바다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상, 07:40 교원공제, 07:50 문예회관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다음카페 광주수도산악회

010 5778, 010 915 1000

3월 27일(수)

▲광주수도산악회 3월 27일(수) 충남 광주 대회장, 07:30, 바다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상, 07:40 교원공제, 07:50 문예회관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다음카페 광주수도산악회

010 5778, 010 915 1000